

1967年 10月 4日 公報부등록 라-932

대관장 메시지 : 성탄절을 맞이하여
진리를 찾은 소년 (9 페이지를 보시오)
당신도 기도를 가르칠수 있습니다

성도의빛 12



영감의 멧세지

골든 비. 힝크리

(12사도 정원회)

역원을 맡고 계시는 분, 교사와 선교사 여러분, 그리고 가족의 머리되시는 분에게 삼가 청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영혼에 먹이를 주며, 영을 살찌게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상이 영적인 양식의 기아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옛 예언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남자가 다 갈하여 피곤하리라.」 (아모스 8 : 11~13)

나라 안에는 굶주림과 갈증—주님의 말씀에 대한 심한 굶주림과 영적인 일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는 갈증—이 있습니다. 영혼을 살찌게 하는 의무와 기회는 우리의 것입니다. 저는 성령이 우리의 동반자가 되시어 끊임없이 주의 영감을 구하고 높은 영적 수준에 도달하려 노력하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성령으로써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신의 은사로써 지식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교성 12 : 1~26)고 계시를 통하여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 4 권 제 12 호

순 서

1968년 12월호

권두언 : 성탄절을 맞이하여 데이비드 오. 벡케이.....	1
성탄절의 기적 존 롱덴.....	3
당신도 기도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제인 제미슨.....	6
진리를 찾은 소년 하젤 더블유. 루이스.....	9
관리 감독단 페이지 : 결심.....	12
상호 부조회 : 성탄절의 어린양 엘라일 엠. 머레이.....	14
주일학교 : 행복한 모험 루실 벨슨 켄슨.....	16
청소년 편 : 복음의 표준과 인기 폴 에이취. 던.....	19
보잘 것 없는 나의 방에서 게리 알. 헛치.....	21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 트루디 리취.....	22
상호 향상회 : 상호 향상회를 통한 개인의 완성.....	23
지방부장단 멧세지 : 정의로운 지도자가 되기까지 박 재암.....	25
내외소식.....	26

어린이 성도의 벗

성탄절에 사귄 친구

<연속 탐정소설> 나비단의 비밀 제 3 회

1967년 10월 4일

공보부 등록 라-932

발행일 1968년 12월 1일

(통권 제41호)

발행인 : 서 현 보

편집인 : 홍 무 광

번역 : 한국 번역 출판부

(T. S. D)

전화 73-5331.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선교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210호

인쇄소 : 삼화 인쇄 주식회사

정가 : 50원

1년 구독료 (우송료 포함)

국내 400원 (12월한)

국의 선박 5불, 항공 7불

이달의 표지 : 어리고 배우지 못했던 요셉 스미스는 물몬경을 번역하고 복음의 회복을 이룩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되었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1805년 12월 23일 버몬트주 샤론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163회 생신을 축하하며 물몬경을 번역하는 그의 그림을 표지에 실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구세주의 생애 가운데 있었던 일로, 구세주께서 하신 영적인 연설을 듣고 사람들이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여 구세주에게서 떠나가버렸던 때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짙막한 성경구절을 인용해 보면

성탄절을 맞이하여

대관장 데이비드 오. 맥케이

「그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하지 아니하더라.」(요 6:66)

떠나는 제자들을 바라 보시다가 남아있는 열 둘을 향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자기의 성격 그대로 대답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줄 믿고 알았삽나이다.」(요 6:67, 68)라 하였습니다.

영적 의의

생명의 빵에 대한 설교는 빵 몇조각과 몇마리의 고기를 가지고 5천명을 먹이신 기적의 이야기를 동반합니다. 그리스도는 위대한 교사였으나 복음의 영적 의의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그 기적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빵을 배불리 먹었으면서도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어서 떠나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열 둘을 돌아 보시며 제가 이미 인용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열 둘을 데리고 근처의 산으로 가서서 「인자를 누

구라고 하더냐?」(이 문장의 문법적 잘못은 천여년동안 그대로 시정되지 않았다.) 열 둘은 영의 감동을 마음에 새기면서 대답하기를 「더러는 친례 요한 더러는 일라이어스 어뵤이는 예레미아나 선지자중의 하나라 하나이다.」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자 성급한 베드로의 음성이 튀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주님과 몇일 대화를 나눈 뒤라 거침없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칭찬을 받았읍니다. 「바요나 시몬아(그리스도께서는 이때 베드로라고 부르시지 않았읍니다.)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마 16:13~17)

세상은 간증을 필요로 함

현대 세계는 역사의 어느 때 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간증을 필요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애써 주를 대표하는 자가 되고 그를 따르기 위해 힘써으로써 우리의 영이 영원히 젊어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사상이 육체에 영향을 끼친다면 영원한 진리는 영의 영원한 본성에 공헌하게 되리라는 사실이 진리가 아닐까요? 구세주께서 배반당하시는 날 저녁에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나이다.」(요 17:2) 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교리를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요 7:17)

지혜는 노력 끝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은 모두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고귀한 것은 육체의 힘, 지혜의 힘, 영적인 힘을 지닐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마 7:7)

이러한 약속이 있으되 우리는 구하여야 하고 문을 두드리야 합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 더욱 알려는 굳은 결의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 우리의 사랑하는 이, 우리의 이웃에 참될 수 없습니다. 속에 있는 영은 진리가 이 낡은 세상에 존재한다고 간증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하고 성실하게 기도하고, 의를 다하고, 말은 직분을 훌륭하게 수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간증을 드리겠습니까?

미가서 제5장에 보면 예언자가 메시아의 출생지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한 이 계시를 받은 목자들이 밤에 양을 지킬 때 그 예언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고, 모든 유다가 간직하고 있던 것같이 그들도 메시아가 속히 오리라는 희망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헬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라.」(누가 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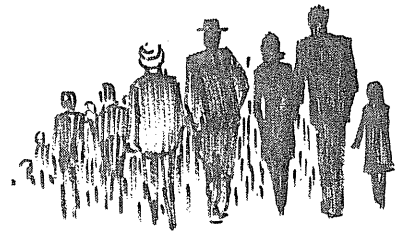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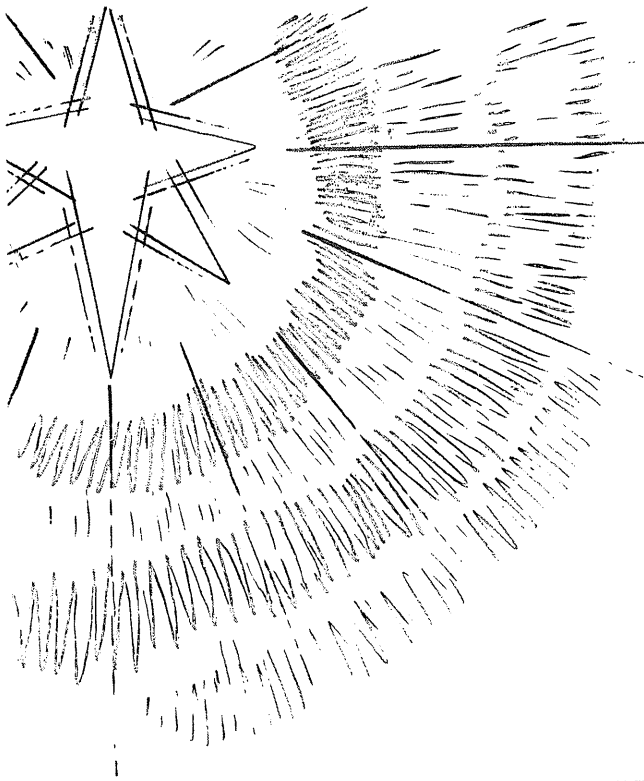
목자들은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하지 않았고, 「이 일이 사실인지 아닌지 가 보자.」고도 말하지 않았으며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천사가 만왕의 왕, 주의 주가 되시는이께서 조그마한 유대 땅에서 가장 누추한 곳에 한 아기로 오셨다는 멧세지를 세상에 주셨다는 확신을 목자들은 가졌던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갖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여러분은 과연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 하늘에 그리스도의 탄생을 고하셨다는 똑 같은 확신을 여러분의 마음에 가지셨습니까? 모든 의심은 사라지며 현세에서의 인생의 목적에 대한 근심은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간증이 목적하는 바인 것입니다.

살아 계신 그리스도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 주의 탄생을 축하할 때 저는 주님의 교훈과 생활이 이전보다 더욱 아름다워지고, 더욱 필요한 것이 되고, 인류의 행복에 더욱 적절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지상에서 생활한 결과로 인간성이 완성된다는 것을 지금처럼 굳게 믿은 때는 일찌기 없습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하여 인간 완성의 표본으로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으로서 인류의 구세주와 구속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속주요, 구세주요, 주로 받아 들이는 동시에 그의 복음을 구원의 계획으로서 인간의 행복과 평화에 이르는 완성의 길로서 받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으로서 인류의 성장, 발전, 행복에 적용되지 않은 원칙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교훈 하나하나를 세세 진정히 생활 철학이 됩니다. 저는 그것들을 마음을 다해 받아들입니다.

온 세상에 용기를 잃게 하고 낙심케 하는 요소가 가득찬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는 한 해를 통틀어 가장 기쁜 시기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모범에 가장 잘 어울리게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마음 속에 간직해둡시다. 그분은 우리의 주요, 구세주시며, 그분이 탄생하실 때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는 말씀이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2:14)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평화가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여러분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병자가 건강을 회복하고, 슬픔을 당한 자는 위로를 얻으며, 외로운 자는 그 마음에 격려를 받으며, 피곤한 자는 안식을 얻으며, 굶주린 자는 배불리 먹게 되며, 의심하는 자는 확신을 얻게 되며, 악한 자, 간교한 자는 패배당하게 되기를 빕니다.



성탄절의 기적

존 롱튼 장로 (12 사도보조)

얼마전에 저의 주의를 끌게 했던 사실을 말씀드려 제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이제 막 성탄절 특별 수당을 지급 받은 젊은 여자가 친구와 함께 물건을 사려고 시내 중심가엘 갔습니다. 그들이 상점에 갔을 때 그 여자는 조그만한 사내 아이가 그 근방에 서있었는데 그 아이에게 무척 관심이 갔습니다. 얼마 동안의 시간이 지난 후 그 여자가 상점을 다 돌아보고 떠나려 하자 그때까지도 그 아이는 거기에 우뚝키니 서있었

읍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아이에게 가서 이렇게 물어 보았습니다.

「너, 엄마 아빠를 기다리고 있니?」

「아니요, 저의 엄마 아빠는 돌아가셨어요.」

「저런, 춥지 않니?」

그 조그마한 아이는 그 여자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지금은 아줌마가 나에게 말할 것이 못되요.」라고 투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아이에게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너 내가 돌아 올 때까지 여기 좀 서있겠니?」

그 여자는 자기의 손을 그 아이 어깨에 올려놓고서

「자, 너 어디 가지 않겠다고 나하고 약속하자. 내가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여자는 상점에 들어가서 그 아이에게 줄 따뜻한 옷을 사가지고 돌아 왔습니다.

「아줌마는 하나님의 부인이세요?」

「아니,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 중의 한 사람이라네.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지.」

「아뇨, 저는 아줌마가 틀림없이 하나님과 친척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유에서 나신 어린 예수와 관계가

우리가 아주 예민한 광량측정기를 발명하여 측정한다면 그 광도의 맑기가 가장 높은 때 좋은 생각, 가장 깊은 감정, 가장 좋은 정신을 을 성장하게 합니다.



있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물질적인 선물을 주었을 때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화평은 물질적인 선물을 주고 받고 하는 것 만으로 이룩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개개인 즉 당신과 나 사이에서 출발하는 마음과 마음이 교차될 때 만이 이룩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랑의 복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를 발견자로, 과학자로, 예술인으로, 혹은 정치인으로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의 위대성은 어디서 빛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인격, 즉 영성의 영역 안에서 빛나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요한 14 : 27)고 하셨습니다.

그는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죄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이타적인 선행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뒤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요한 3 : 16)

이와 같은 것을 볼 때 우리가 주는 것은 물질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헨리 반다이크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가를 묻지 말고, 여러분이 친구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단 하루라도 이러한 일을 즐거이 해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크리스마스를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하루 동안 그것을 실행할 수 있다면 왜 항상 실행할 수 없겠습니까?」

평화를 가져 오는 공식

평화와 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공식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옛 것의 재발견에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평화와 진보가 시작한 과거로부터 시간이란 제한 밖의 먼 미래의 역사를 예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주신 것입니다. 그는 2천년 전에 간단한 말씀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누가 10 : 27)

예수는 또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요한 10 : 10)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폭군이 지배하는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화의 왕이셨습니다. 예수는 폭군의 희생물이 되어 돌아 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살아 계셨을 동안에 사랑의 복음과 이웃과 화해하라는 복음을 가르치셨으며 그는 조화, 평화, 우애, 기쁨의 화신이었습니다. 평화를 이루시는 이 없이 이 세상에 평화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반대하는 자도 평화를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배반한 사람도 평화를 알 수 있습니까? 예수는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태 11 : 28~30)

이러한 모든 말씀이 이 세상의 평화와 전쟁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곧 성탄절의 멧세지가 아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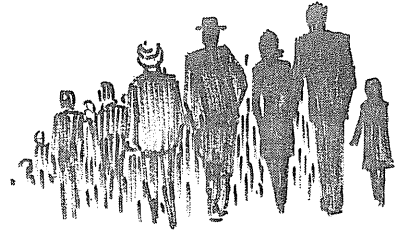
성탄절의 신기한 힘

윌돈드 에이. 피터슨은 이 사상을 「마술적인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대단히 아름다운 글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전기 스위치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크리스마스의 마술은 우리들에 의해서 조종됩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크리스마스의 이상을 끄거나 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집에 있는 전기불과 같이 성탄절은 사람의 선악의 전환 능력을 원할 때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서

그것으로 사람들—남녀, 어린이 얼굴의 광도를
는 크리스마스 때 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장
크리스마스 때 발사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인간

윌포드 에이. 피터슨



생활할 수도 있고 또한 밝은 세상에서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일년 내내 마음 속에 선의 기쁨, 관용의 촛불을 항상 켜서 조그마한 불꽃이 악, 이기심, 증오로 둘러싸인 어둠 속을 밝게 비추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영의 전기를 켜는 스위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잠시동안 희망, 사랑, 믿음, 친절, 평화로써 찬란하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영적 전기의 사용이 가능한데 영의 촛불이나 석유등잔을 키는 후회를 해야 합니까?

사람들에게 전기불과 힘을 주는 거대한 동력은 일년 내내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의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마스는 거대한 정신의 원동력입니다. 그것은 희생하는 사람의 정신에 빛을 비추게 하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정신을 일년 내내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스위치는 우리들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비유

저는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비유 하나를 인용하겠습니다. 비유의 제목은 「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입니다.

이야기는 프라이블그에 있는 커다란 교회당 울겐 연주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느날 그가 의자에 앉아서 울겐을 연주하고 있는데 어떤 낯선 사람이 들어와 그 사람 뒤에 한참 서 있더니 거의 반시간이나 후에

「저에게 울겐 좀 치게 해주시겠습니까?」라고 말을 했지만 그 울겐 연주자는 거절했습니다. 그 낯선 사람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조금 후에 그는 다시 치기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울겐 연주자는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그에게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그 낯선 사람은 의자에 앉아서 잠시 동안 울겐 건반을 쳐다보고 있다가 울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곧 그 커다란 울겐은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 했던 웅장한 음악을 파이프를 통해서 내 보냈습니다. 그 음악은 교회안에 가득히 울려 퍼졌으며 천장 구석구석에 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잠자는 천사도 깨울 것 같았으며 교회의 돌기둥까지

도 기뻐 날뛰는 것 같았습니다. 그 울겐 연주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의 어깨를 덥석 잡으면서

「당신은 누구세요?」라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그 아름다웠던 음악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나는 헤릭스 멘델스존입니다.」

그의 대답을 듣고난 울겐 연주자는 「제가 잘 못 알고 보고 울겐 치는 것을 거절할뻔 했군요.」라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중에 화평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을 원한다면 위대한 음악가 멘델스존이 여러분의 울겐을 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정신을 마음 속에 간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저 단순한 생활이 하늘 나라의 평온을 누리는 생활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성탄절의 인사

주후 1513년, 지금으로부터 4백여년 전에 기록된 크리스마스 인사를 인용하겠습니다. 프라 지오바니가 쓴 크리스마스 벵세지에서 제가 영감을 받은 것 처럼 여러분들도 역시 영감을 받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삼가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하늘이 없어 안식을 누릴 수 없다고 해서 하늘이 우리에게 올 수는 없습니다. 하늘을 택하십시오.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은 평화는 미래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누리십시오.

이 세상의 어두움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 어두움 뒤에는 우리가 도달 할 수 있는 거리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영원토록 여러분을 위한 날이 밝아서 어두움이 영영 사라지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당신도 기도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참새들이 창문 밖에 서 있는 편백나무에서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엘렌은 잠 못 이루는 긴긴밤이 지나가 버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여자의 가슴 속은 말할 수 없는 심한 고통으로 꽉 메워져 있었습니다. 남편인 마이켈이 곁에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어제 저녁에 전화로 바베이 병원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라고 말한 사람은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간단히 설명한다면, 고등학교 졸업식을 끝마친 직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의 아들 로버트는 모자와 가까운 입은 채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뇌진탕입니다. 두개골이 파열되었습니다. 머리에 연결되어있는 척추 끝에서 피가 흐릅니다. 출혈을 멈추기 위해서 곧 뇌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출혈을 멈출 수 있다면 가망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의사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각기 마음 속으로 기도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예기치도 않았던 혼란이 조용한 이른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문을 박차고 허겁지겁 들어온 사람은 다름아닌 로버트의 가장 친한 친구인 자니 헨슨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막 로버트가 다쳤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얼마나 다쳤어요?」하며, 몹시 알고 싶어하는 표정으로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렌은 로버트의 심한 부상에 대해서 애써 설명하려고 했지만 음성이 떨리면서 흐느꼈습니다. 남편 마이켈은 아내를 감싸주었습니다.

× × ×

그들의 대화가 단조롭게 되자 엘렌은 18년전 8월 어느 날을 회상했습니다. 그날은 로버트가 바로 이 병원에서 출생한 날이었습니다.

그는 아기새 처럼 여윌었고 아주 조그마한 붉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빨리 세월이 흘렀는가!

그가 힘없이 비슬거리며 크리스마스 리본을 달고서 새 세발 자전거를 타던 때가 엇그제 같았고, 입학식 날에는 두려움 속에서 하루를 보냈었고, 이젠 새 푸른 바지와 붉은 폴덴샤쓰를 입고서 완전히 성장했습니다.

국민학교 때의 생활은 새로운 성장을 마련해 주었고, 개구장이 시절에는 좀더 넓은 면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시절에 자니가 옆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웃사람끼리의 예의로서 엘렌은 로버트를 시켜서 점심에 음식을 담아 보내주었고, 돌아올 때 로버트는 자니를 집으로 데리고 오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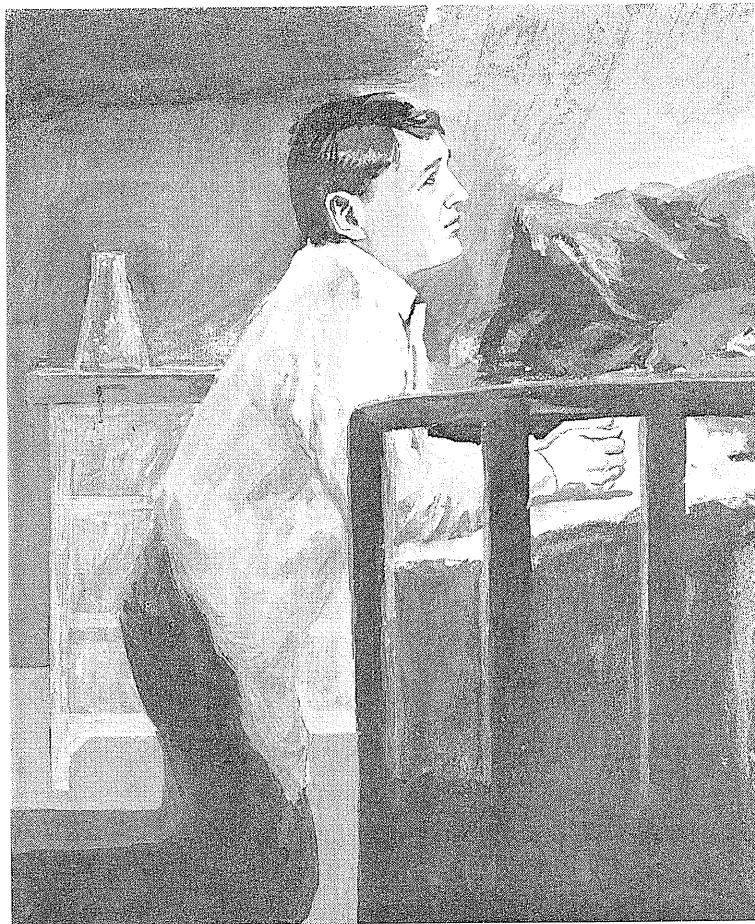
며칠이 지나지 않아 자니의 가정환경이 로버트의 것과



매우 틀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활하는 사고방식과 표준이 엘렌의 가정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좋지 못한 언사가 많았고, 그들의 생활 어느 한구석에서도 신앙심이라고는 찾아볼래야 볼 수도 없었습니다. 엘렌은 로버트가 자니와 사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두 어린아이는 좋아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자니가 로버트보다 3살 위이기 때문에 자니는 보다 성숙했고 8살된 그의 눈동자는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니는 로버트와 함께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날 두 아이는 초등학교에서 집까지 경주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자니가 계속 앞서 왔습니다. 그리고 난다음 로버트는 문 뒤에서 부끄러운 듯이 서있다가 그는 우악스럽게 나의 손목을 잡고 마루로 끌고 들어가서 「어머니 자니에게 기도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속삭였습니다.

보통 때는 거칠게 보이든 그가 감수성이 예민한 소년처럼 부끄러워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예기치 않았던 질문으로 해서 그만 목이 메이고 말았습니다. 그는 다음 수요일 초등학교에서 개회기도 할 것을 부탁 받았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자니를 도와주어야지.」

엘렌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년들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자니야,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니?」

「네, 조금은 짐작해요.」

「우리가 믿고 받을 수 있다고 기도하면 우리가 정당히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래, 기도는 말 일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야. ‘기도는 영혼의 소망’이라는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를 들어봤지?」하고 찬송가 몇 줄을 흥얼거렸습니다.

「엄마, 초등학교 대회에서 부른적이 있어요.」 중요한

일을 도와 주려고 로버트는 덧붙여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 경건성과 존엄성을 표시하기 위해서 특별히 쓰는 말이 있어. 즉 너를 당신으로 쓰지.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축복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야. 네가 축복받은 것을 네 자신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테.」

「모든 착한 일은 다 축복 받는다고 생각해요.」라고 자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기도문을 대강 작성했습니다. 자니도 기도문을 작성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다음 수요일, 로버트는 초등학교로부터 돌아와서 평상시같이 활발하지도 않았으며 자니가 집에 있나없나만 살폈습니다. 「로버트야 자니가 기도를 잘 했니?」라고 엘렌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는 그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못 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그는 그의 방으로 가 버렸습니다.

엘렌 역시 좀 좋지 않았지만 그 이상 그 문제를 따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렌은 다음날 초등학교 부장인 린드레자매를 시장에서 만났을 때, 어제 일어났던 일에 관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아! 예, 그는 기도 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는 너무나 당황해서 들리지도 않게 몇마디 중얼거리고 돌아서서 문밖으로 나가 버렸어요.」라고 그 부장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엘렌은 다시 다음해 여름에 자니가 자기집에 와서 저녁 식사 하던 때를 생각했습니다. 엘렌과 남편은 저녁식사 밥상 앞에서 아이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려 했습니다.

그 때 자니가 달갑지 않게 일어서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지 않겠니?」

「자니, 아버지의 고함소리가 열려진 창문을 통해서 들려올 때 자니는 고개를 숙이고 로버트 옆으로 그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니, 자니! 이 쓸모없는 놈 어디 있니? 집에 돌아오지 않겠니! 그렇잖으면……」

나는 자니가 「가봐야 되겠어.」라고 중얼거리며 자기의 목을 만지면서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마주치는 것이 두려워서 뒷문으로 슬그머니 빠져 나갔습니다.

그해 여름 로버트는 제사로 임명 되었습니다. 자니는 자기도 칩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 두 소년의 사이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더욱 친밀했습니다. 곧 자니도 집사로 임명 되었습니다. 나는 언젠가 정월회에 대해서 들은 인용구에 관하여 남편에게 물어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도 이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하느니라.」

「자니,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만 됐었지. 예수 그리스도도 사도에게 신권을 맡겨 이 지구에다

남겨 놓았었지.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커다란 배도가 있기 까지 신권을 사용했었어.」 마이켈은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있는 신권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라고 자니가 질문했습니다.

「요셉 스미스의 이야기를 너는 알고 있지?」

「물론이죠.」

「자, 그러면 이야기하자. 1829년에 하나님의 사자는 요셉 스미스에게 교회를 회복하도록 했어.」 마이켈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신권은 예언자로부터 우리들에게 전해 내려왔다는 말씀이군요.」

「예언자 요셉 스미스 또는 올리버 카우드리로부터지. 그들은 다 함께 신권을 받았거든.」

마이켈은 어린 소년이 신권과 신권의 참 목적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신권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에 기뻐했습니다.

자니가 제사에 임명된 얼마 후 그는 주일학교 성찬을 축복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가 거절하였을 때 그의 제사 정원회 고문이 그것은 간단한 것이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즉 기도문이 쓰여진 카드가 성찬책상 위에 있는데 그것을 읽으면 된다고해서 마지못해 승락했습니다. 처음 축복하는 어린 제사가 빵에 축복을 드리고 나자 자니가 물을 축복하는 차례였습니다.

그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중간에 말을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또 읽었으나 또 다시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감독은 기도문을 다시 읽도록 권했습니다. 그는 세 번째 읽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안은 긴장된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자니는 홍당무가 된 얼굴로 벌떡 일어서더니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다른 제사가 재빠르게 그 자리에 앉아서 물의 축복을 드렸습니다. 여러 주일이 지난 다음에야 자니는 다시 교회에 나왔습니다.

나는 자니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만 사람이 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두 소년의 우정이 멀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자니는 대학생생활에서도 그와, 그리고 2학년 1학기때 그는 로버트에게 그가 결혼할 계획을 하고 있는 소녀를 만난 기쁨을 편지로 알려왔습니다. 그는 추가해서 말하기를 「로버트, 그여자는 멋진 여자야, 그리고 교회 회원이야. 우리가 신전에서 결혼을 할 때 너의 양친이 함께와 주시기를 바라고 있어.」

엘렌과 남편 마이켈은 자니와 그의 신부와 함께 신전으로 같이 갔습니다. 엘렌은 그들이 제단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로버트가 어렸을 때 「어머니 자니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애원하던 말이 귀에 쟁쟁 울렸습니다.

× × ×

흰 들것이 들어오자 엘렌은 급작스러히 현실로 돌아왔

습니다. 머리를 봉대로 감고 꼼짝 안하는 로버트의 모습을 보니 몸서리치는 공포가 다시 엄습해 왔습니다. 엘렌은 힘이 하나도 없이 남편을 바라보고, 다음에 자니를 바라 보았습니다. 자니의 뺨에는 주르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들것이 병실로 굴러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을 때는 흰 옷을 입은 두사람이 빈 들것을 끌고 나가버렸습니다. 다음에 간호원이 들어갔습니다.

「전문의사 크레인박사는 아직 수술 중입니다. 하지만 곧 오셔서 당신과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스노우박사께서 오십니다.」 「대기실로 들어오고 있는 의사에게 고개로 끄떡 인사하며 간호원이 말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원이 방으로 들어가자 대기실에서 기다리고있는 마이켈, 엘렌, 자니를 남겨두고 문은 다시 닫혔습니다.

시간이 가지않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후 스노우박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는 거의 들릴락말락 하는 낮은 음성으로 「당신의 아들은 가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벼락이 떨어지는 소리같이 들렸습니다.

「크레인 의사를 부르겠습니다. 하지만 때가 이미 늦은 것 같아서 몹시 두렵습니다.」

「왜, 왜 그래요.」 엘렌은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 때 그 여자가 들은 「제가 그를 위해 기도를 드릴까요?」라고 한말은 자니의 음성이었습니다.

확실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서 자니는 어색하게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니의 기도는 로버트가 자기를 이끌어주고 자기의 생활 속에 점차로 스며든 교훈에 감사를 드리면서 명백히 그리고 의미심장하게 마음 속에서 부터 기도를 드렸습니다.

무게있는 말로써 그는 자기의 친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애원했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문이 열렸습니다. 아직까지 수술카운을 입고있는 크레인박사였습니다. 「스노우박사가 방금 나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크레인박사는 부드럽게 말을 했습니다. 능숙한 솜씨로 의사는 거의 기계적으로 손가락을 환자의 팔목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주저했습니다. 그리고 난다음 그는 재빠르게, 하지만 부드럽게 시트를 베었습니다. 그리고 청진기를 그 소년의 가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번 청진기를 쪼였습니다. 그는 당황해 하는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굴 양미간에 깊은 주름을 지었습니다. 몇초 동안 아무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의사는 갑작스럽게 간호원에게 「산소호흡을 다시 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엘렌은 「어머니 자니에게 기도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하던 로버트의 말이 다시 들려오는듯 했습니다.

진리를 찾은

소년



하젤 더블유. 루이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어린 시절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들의 내력을 쓴 어머니까지도 그의 어린 시절은 일상생활에서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셉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점점 커가는 가정살림 때문에 바빠 일을 해야 했으므로 요셉의 어머니 루시 맥 스미스는 사소한 일을 돌 볼 겨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스미스까지도 요셉의 어린 시절에 특이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그는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의 사랑을 독차지 하면서 성장했습니다. 비록 가정생활은 어려움을 받았지만 아이들은 부지런히 공부를 했고 서로 서로 믿으며 충신했습니다. 이 모든 요소는 그의 일평생의 생활을 충만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틀전

1805년 12월 23일 어느 추운 겨울날 버몬트주 윈조군 샤론 마을에서 조그마한 사내 아기가 스미스의 가정에 탄생했습니다. 어머니 스미스는 갓난 아기를 꼭 껴안고 그녀의 자녀들 일곱살 된 알빈, 다섯살 된 하이람 그리고 이제 겨우 두살인 소프로니아를 가까이 불러서 새로 탄생한 아기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본따서 요셉이라고 부르자고 했습니다. 아기 요셉의 어머니께서는 그 아이가 이 지구상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 하게 될 놀라운 일을 하나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의 가정이 샤론에 있을 동안 요셉의 아버지는 농장을 빌려 여름 동안 경작을 했습니다. 그 가정은 버몬트와 뉴 햄프셔주의 경계가 되는 지방의 여러 마을로 자주 이사다녔습니다. 요셉의 어린시절 동안 그 가정은 샤론에서 턴브릿지로 돌아와서 로이알튼으로 이사를 했고 다시 뉴 햄프셔주 레바논으로 이사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뜻하지 않았던 불운

요셉의 탄생으로 부터 그의 아버지가 레바논으로 옮길 때까지 스미스 가정에는 사무엘이 출생했고, 이프레임은 태어나서 10일 만에 죽었으며, 또 윌리엄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정이 레바논으로 이사했을 때는 집안 살림이 매우 밝아졌을 때였습니다. 요셉의 어머니는 그 당시의 일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우리들은 정착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서 번영할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돈을 보다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두배로 노력했습니다.

요셉의 둘째 여동생인 케더린이 얼마 후에 레바논에서 탄생했습니다.

스미스의 아이들은 학교에 다녔습니다. 하이람은 하노버의 아카데미에 다녔고 다른 아이들은 국민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들은 학교에서 읽는것, 쓰는것, 그리고 간단한 수학을 배웠습니다. 스미스의 가정은 신앙이 두터운 가정 이었고 저녁에는 성경을 차례로 돌아가며 읽었습니다.

갑자기 뜻하지 않았던 불행이 또다시 그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이 때 감염율이 대단히 높은 발진지브스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소프로니아가 앓았고, 다음 하이람은 학교에서 병을 옮겼고, 다음은 알빈이 앓았습니다. 그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차례로 이 무서운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도와 주실 겁니다

8살 된 요셉은 열이 좀 내리는 것 같았으나 얼마 후 어깨가 몹시 아파서 신음을 했습니다. 요셉이 어깨를 다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의사는 그 고통은 어깨 관절이

다쳐서 오는 아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사는 관절에 사용되는 좋은 약을 발라 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수주일 후까지도 그의 어깨는 몹시 피로운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 아픔은 그의 등으로 옮겨갔고 다음은 다리로 옮겨왔습니다. 그의 다리가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수주일 후에 의사가 와서 두차례 수술을 했습니다. 이 수술은 고통을 없애 주었지만 수술한 것이 낫자 그 다리는 너무나 부었기 때문에 몇 사람의 외과의사를 불렀습니다. 진찰이 끝난 후 그들은 다리의 절단수술이 요셉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어머니 스미스는 몹시리 치도록 피로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픈 뼈를 절단하지 않고 수술을 해서 그의 다리가 병신이 되지 않도록 해 주기를 의사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시절에는 오늘날 의사들이 수술할 때 사용하는 마취약을 쓰지 않았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의사들은 요셉을 침대에 묶어 놓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용감한 소년이었었습니다. 그는 묶일려고 하지도 않았고 고통을 덜기 위해서 의사가 먹으라고 하는 포도주나 부렌디도 먹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조금도 술을 입에 대지도 않겠으며 묶이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일을 당신들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침대 위에 앉아서 팔로 저를 붙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뼈를 수술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어머니가 애처러워 하는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어머니를 방에서 나가시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여기 계시지 않겠다고 저에게 약속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저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 고통스러운 수술로부터 차차 회복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이 영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복되는 동안 아저씨 제스 스미스와 함께 마사츄세츠주의 샬렘으로 갔습니다. 그의 양친은 바닷바람이 요셉에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건강은 회복되었고 그의 다리는 튼튼히 자랐습니다. 그가 레바논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약간 절었을 뿐이었습니다.

팔마이라로

모든 가족의 건강이 다시 회복된 후에 요셉의 가정은 코네티컷 강을 다시 건너서 버몬트주의 놀릿치로 이사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가정은 머독씨의 농장을 빌렸습니다. 다만, 요셉의 아버지는 2년동안 농사에 실패했습니다. 3년째 되는 해에도 농사는 심한 추위로 또 실패했습니다. 그때 요셉의 아버지는 좋은 농토가 있다는 뉴욕주로 가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그는 자기의 부인과



새로 탄생된 아기는 그들에게 성탄 선물이었다,

여러 자녀를 부르리라 생각했습니다. 그 동안 새로운 아기 돈 칼로스가 탄생했습니다.

어머니 스미스와 아이들은 팔마이라로 마차 여행을 떠날 준비를 부지런히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도 걱정 없이 떠날 준비가 될 때까지 나와 너희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쯤 요셉의 아버지는 그들을 오라고 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싸리비와 생강빵

요셉의 양친이 뉴욕주로 이사를 할 때 그의 나이는 10살이였습니다. 뉴욕에서 처음 2년동안 그의 양친은 팔마이라에 있는 주택지 2187번지의 집을 빌렸습니다.

그들이 대단히 갈망하던 농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 전원은 즉시로 일터로 갔습니다.

알빈은 여객선을 만들기 위하여 선원으로 일하는 목수를 돕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가지 일을 잘 하시는 아버지 스미스는 나무의자와 바케즈, 싸리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썸과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리고 난로와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는 농부들을 도와서 농작물을 거두어들였습니다. 그는 어떤 일에는 하이람과 어린 요셉을 데리고 가서 자기를 돕도록 했습니다. 음식을 잘 만드시는 어머니 스미스는 과자점을 차렸으며 특히 토요일과 휴일에는 손님이 많이 오는 음료수 장사를 했습니다. 동네의 아이들은 요셉의 어머니가 만든 생강과자와 빵을 참으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소프로나아는 즐겁게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그들은 또한 어머니가 고안해서 칠한 의자 카바와 유포를 팔았습니다.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된 아이들은 팔마이라에 있는 통나무로 지은 조그마한 학교에 다녔습니다. 요셉의 학교 생활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가 거기에서 학교에 다니는 동안 적어도 3권의 책을 배웠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1818년 1월 31일자로 된 그의 자서전에서 싫어했다고 한 수학의 첫걸음이 그 한권이요, 영어독본, 그리고 종교서적입니다.

질문 잘하는 소년

요셉의 14번째 생일이 지난지 얼마 안 되어서 여러가지 교파(침례교, 감리교, 장로교)의 순례목사들이 개종을 시키기 위해서 팔마이라 부근에 들어왔습니다. 스미스 가정과 이웃은 만체스타 학교에서 열리고 있는 그 모임에 갔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팔마이라에서 개최되고 있는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스미스 가정은 항상 성경을 읽는 믿음의 가정이었지만 어느 교회에도 속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어머니 루시 스미스, 소프로니아, 하이람, 사벨은 장로교파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의문의 소년, 진리를 추구하는 어린 요셉은 어느 교회에 나가야할지 몰랐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알빈은 감리교회에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메더디스트 감리교의 레임목사의 설교에 대단히 흥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 목사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읽은 긴 성서의 어떤 것은 그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레임목사가 말한 성서의 구절을 다시 읽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



그의 가족은 고된 여행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았다.

하면 주시리라」(야고보 1장 5절)

이 구절은 요셉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는 어느 교회가 옳은가를 결정할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물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요셉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숲속으로 들어간 때는 1820년 아름다운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큰 소리로 기도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떤 힘에 너무나 사로 잡히는 것 같아서 떨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두움이 그의 주변을 둘러 싸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치 최후의 심판을 받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기를 둘러 싸는 것처럼 느껴지는 보이지 않는 힘에 놀라움을 느꼈을 바로 그 순간에 그는 그의 머리위로 비치는 빛기둥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태양보다 더 밝게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빛기둥은 그의 머리 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때 그는 찬란히 빛나는 두 분의 하늘의 사자가 바로 자기 머리 위에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 중의 한 분이 그 옆에 분을 보고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요셉 스미스 2 : 17) 그 때 요셉은 그분에게 어느 교회가 참다운 교회이며 어느 교회에 나가야 되는 지를 물어 보았습니다.

나는 진리가 무엇인지 스스로 알았습니다

그 대답은 어느 교파도 옳지 않으며 어느 교회에도 가입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혼자있게 되었을 때 그는 드러누워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힘이 회복되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집에 도착하였을 때 어머니 스미스는 아들이 없어졌다고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으나 눈동자는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왜 그렇게 이상스러운 행동을 하는가 알기를 원했을 때, 「그는 장로교는 진실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나 스스로 알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날부터 요셉의 가정은 어린 요셉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참으로 보았으며 하늘의 사자가 요셉에게 진정한 교회는 아무데도 없다고 한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의 동생 윌리엄이 늙었을 때 한번은 어떤 사람이 요셉의 간증에 의심을 해본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모두 그가 말한 것을 확실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실한 소년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를 믿었습니다. 왜,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를 믿을까요? 그가 어떤 일에 대해서 거짓말만 했다면 그의 말을 의심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는 진실하고 성실한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의 말을 믿었으며 믿음으로 해서 그들 부모가 필박 받는 사실은 그가 참으로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단 일분간이라도 그의 말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관리 감독단 페이지>

젊은이에게 주는 말씀

결 심

그리스도가 나시기 800여년 전에 예언자 요엘은 우리들의 세대는 많은 문제가 따를 것이라고 내다 보았습니다. 그는 죄악이 번창할 때 이 세상은 종말이 올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우리들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사람이 많음이며, 심판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며, 심판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요엘 3 : 14>

우리는 심판의 골짜기에 있으므로 요엘의 예언은 확실히 맞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당면 문제는 이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 사이에서 방황하지 말고, 우리가 갈길을 확실히 정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추종하겠다고 맹세하는 사람을 요구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데 있어서는 용감하고 완전하게 자기 자신의 약속을 굳게 하는 자가 요구 됩니다. 사실로 하나님께서 말씀 하시길 「나와 함께 아니 하는 자는 나를 반대 하는자요.」(마태복음 12 : 30) 우리는 가인과 유다 혹은 레이뎀을 볼 때에 이 말씀의 진실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심판의 골짜기에 서서 하나님을 추종 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옳은 일을 할 것을 자기 스스로 깨닫고 약속 한다는 것은 참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길인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옳은 일을 하겠다는 결심없이 성공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안에서 만족스럽게 살기를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온지 얼마 안된다고 해서 여러분의 행동에 속임수가 있다든지, 당신의 양친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받아 들여질 수 없습니다. 담배, 술, 부도덕적인 것, 정직하지 못한 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와같은 나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모든 나쁜 행동을 하지 않고 명예와 권위로서 교회를 다스려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것은 위선입니다.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며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선택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장 좋은 본모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긴 다소의 사울을 부르신 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확고한 신념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는 옳다고 생각되면 그 일을 위해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분이었습니다. 의심없이 그는 예수를 믿는 이교도의 나라를 킵박하는 것은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의 열성이 어찌나 강했던지 사도 행전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강경한 말로서 그의 그릇된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 에게가서」(사도행전 9 : 1)

비록 사울의 행동이 그릇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울이 올바른 이유로 행동한

다면 그의 열성은 곧 충만케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쫓아서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주님께서 사울에게 나타 나서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하시니 주저하거나 불신앙없이 사울은 「주여 당신은 저에게 무엇을 시키려 하시나이까」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9:5~6) 그는 곧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생활은 참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사울의 결심은 그를 위대한 선교사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디모데에게 쓴 편지는 그의 결심이 얼마나 완벽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딤후 1장 7~8절)」

오늘날의 세계는 두려움을 갖지 않고 힘과 사랑과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데 스스로 몸을 바칠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부르신 주님의 말씀은 여자나 남자나 스스로 결심하며, 일단 결심을 하면 후에는 그 결심에 참되기를 얼마나 바라고 계신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기자신의 약속의 필요성은 요한 계시록의 한 구절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계시록 3:15~16)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완전히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서 생활할 수 있는 경지에까지 어느 정도나 도달하였을까요?

그곳에 도달하려면 교회에서 배우는 것으로서 충분 할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가장 참되고 적합한 근거지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혹은 거기에 부가해서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의 사도인 시몬 베드로의 업적을 살펴보면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아주 친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대단히 가까이 지냈습니다. 베드로는 공개적으로 그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진정한 주님인가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시험받았을 때 그가 예수님과 같이 지냈다는 사실을 부인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 것도 잡지 못하였더니」(요한복음 21:3)

아직 베드로는 성령의 계시를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집에서, 감옥에서, 거리에서, 혹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용감히 할 수 있는때까지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할 것을 결심 했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결심은 오순절 때부터 시작해서 그의 전도 사업을 통털어서 명백히 잘 나타났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자기스스로 결심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서 성령의 계시를 얻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우리는 의식적으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서 살기를 결정해야만 됩니다. 이 마지막 단계가 중요합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귀의하고자 하는 약속은 자동적이고, 고립된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들이 의식적으로 심사숙고한 끝에 결정할 뿐입니다. 우리는 사울이 요구한것 처럼 되어야 합니다. 「주여.당신께서 제게 시키실 일은 무엇이오니까」 그리고 난다음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를 수행해 나가야만 됩니다.

어떤 젊은이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에 의해서 올바르게 말을 했다면 그는 항상 자기가 한 말을 행동하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서 살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꼭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나 나는 그러한 복음가운데 살지않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위대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심판의 골짜기에서 있을 때 여호수아가 한것 같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굳게 선언해야만 합니다.

당신은 이날의 영철이를 잘 알지 못 할 것입니다. 바로 그날 그는 크리스마스 화랑을 방문 했습니다.

그는 특별한 방에 있는 그림을 보며 깊은 감명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방은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만 열어 놓으므로 어떠한 그림이든지 다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이곳의 그림들은 가장 좋은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그저 잘 그린 것 만으로는 안되었습니다. 이방의 그림은 보는 것 못지않게 감정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좋은 기술보다는 보다 더 좋은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사람이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오! 잘 된 그림 이야! 나는 이 그림을 그린 화가를 만나봤으면.」하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보다는 그림 가까이 가서 혼자말로 「이번 크리스마스에 한 번 갈 수 있었으면.」하는 생각이 나게하는 그림 말입니다.

영철이는 방의 중앙에 있는 벤취에 앉아서 조용히 각각의 그림을 차례로 열심히 드러다 보면서 그 그림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 골똘히 생각 했습니다. 그는 서둘지는 않았습니다. 아침에는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이 시간을 택해서 화랑에 왔습니다. 그를 제외하고는 단지 한 사람만이 오늘 아침 그와함께 이 방에 있었습니다.

그는 낮익은 옛날 그림들을 즐겨 보았으며 새 그림 하나를 마지막에 보려고 남겨 두었습니다. 이 그림들 하나 하나는 그에게 특별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것은 그로 하여금 특별히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말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의 다른 점은 무엇이였을까 하고 그는 그것을 보고 난 후 아주 이상스러운 느낌을 느꼈습니다. 그 그림은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다른 어떠한 장소에서도 그 그림은 전시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림 가까이 다가가 보았습니다. 광경은 마굿간 안에 있는 거룩한 가족 그림인데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림 속에 있는 목동 중의 한 사람은 어린 예수 앞에서 있었고 한 사람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뜬 셋별들은 반짝이고 있었으며 요람과 자는 애기를 찬란히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림 속에서 관심을 더욱 끌게 한 것은 문 옆에서 있는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그를 감싸고 있는 부드럽고 하얀 양털로 반쯤 덮여져 있었습니다. 그 작은 목자의 눈동자는 놀라움과 자비로서 가득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 처럼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바로 이 어린아기는 자라서 이 세상의 구세주 나의 국민의 임금이 되실 분이이라.”

바로 그 목동이 그를 그 그림으로 가까이 가게한 동기가 된 것입니다. 마치 그가 그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그는 조그마한 목동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에 대한 무엇이 거기에 있었을까?

그는, 이 어린아기를 만져보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 순



성탄절의

어린양

엘라인 엠. 머레이

간, 그의 손은 그 목자의 팔꿈치에 닿았습니다. 영철은 깜짝놀라 뺨쳤던 그의 손을 얼른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구경하러온 다른 젊은이의 얼굴을 쳐다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보세요! 저것은 나입니다!」그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실은 내가……」 그는 얼굴을 붉히면서 더듬더듬 말을 했습니다. 「그는 나를 닮았어요!」

그 사람은 그림을 한 번 보고 영철을 보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꼭 당신과 같이도 생겼고 나 같이도 생겼습니다.」

「나는 소년이 예수에게 그의 양을 주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가 그것을 얼마나 꼭 쥐고 있는지 보세요! 내가 거기에 만약 있었다면 그 양을 어린 예수께 주었을텐데.」

「당신은 아직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눈을 감았을 때든지 그림을 보고 있을 때를 제외 하고는 나는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은 아직 그에게 어린양을 선물로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드릴 수 있구말까요.」

영철이의 어머니가 문 옆에 오셔서 영철을 불렀습니다. 영철은 옆 사람을 보고, 그리고 그림을 보고, 그의 어머니를 쳐다 보았습니다. 그는 주저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빨리 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그 그림 특히 어린 양을 쥐고 있는 목동의 영상과 자기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의 목소리는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 내내 머리 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다음주 까지도 그 영상은 지워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그 생각을 지우기 위해서 나무를 가꾸고, 요리를 하고, 심부름을 하고, 짐을 포장했지만, 그는 그 생각을 지울 수 없었으며 없앨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철이 마지막 짐을 묶어서 나무 밑에 놓을 때 영철은 어쩔줄 모르는 것처럼 보였으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는 「하지만 나는 예수님께 줄 선물이 없어!」라고 중얼 거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어라고?」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생일이야. 우리는 서로 서로 선물을 했다 우리는 꽤 많은 물건을 선물했고 또한 꽤 많이 받았다. 자………」

「오늘은 우리들의 생일이 아니고 주님의 생일이예요. 하지만 나는 주님께 선물을 하지 못했어요. 제가 어린 양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그것을 그분에게 주었을까요? 나는 할 수 있었을꺼야 하지만, 나는 할수 없어. 할수없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그는 거의 절규하다시피 말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들고 있던 신을 마루에 떨어 뜨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어깨 위에 한팔을 올려놓고 다른 한팔로 그의 턱을 잡고 그의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영철의 어머니는 눈물이 글썽글썽한 그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 보았습니다. 자기 아들의 얼굴같이 느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자기와 꼭 닮은 그 목동과 그가 가지고 있는 새끼양에 대한 것과 화랑에서 있었던 남자와 이야기 한 것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애야! 예수님께서 자기생일에 무엇을 원하고 있으며 그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물어본다면 예수님께서서는 무엇이이라고 대답 할지 너는 알고 있지?」

「몰라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 하실거야 ‘내가 선물을 할 수 있는 능력대로 나의 가난한 형제들에게 선물을 해라.」

「하지만 나는 팔만한 많은 재산이 없어요. 그래도 나는 가난한 사람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어떤 사람이 가난한지 모르고 있어요.」

「사람은 여러모로 가난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가난하단다.」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계속 말했습니다. 「네가 가장 싫어 하는 사람을 너는 알고있니?」

「꽃밭영감. 우리가 그의 시들은 꽃밭 보아도 그는 배가 아퍼해요.」

「그가 아주 가까이 꽃들을 감시하고 있고 아주 정신을 들여서 꽃들을 보살피고 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꽃들은 허실이 없는가봐요. 그는 가족도 없고 좋은 친구도 거의 없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나서 어머니는 서둘러 말을 시작했습니다. 「애야! 크리스마스 선물로 너는 무엇을 가장 받고 싶니?」

「저 라디오요.」

「그것은 나무 뒤에 붉은색 끈으로 묶은 푸른 소포안에 있어.」 「오! 하지만 어머니 저는 가질 수 없어요.」

「너는 목동이 양새끼를 사랑했다고 생각하니? 그가 그 양새끼를 예수님에게 주었다고 생각하니?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 어머니는 자기 아들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 보고 꼭 안아 주고는 방을 나갔습니다.

영철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새끼양 가까이 자기의 얼굴을 갖다 대고 있는 목동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 목동이 새끼양을 예수님 아주 가까이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과 성탄방에 있었던 젊은 남자를 자기 멋대로 생각 했습니다. 내가 만약 거기에 있었다면 나는 새끼양을 그분에게 드렸을 텐데.」 그는 또한 꽃밭 영감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의 마당에 까지 가기도 해도 항상 눈살을 찌푸리며 불평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는 그의 방으로 달려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그가 여태까지 해보지 않았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그는 그 다음 날 바로 크리스마스 전날 까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아무말도 하지 않고 저녁을 먹고 난 후 식탁에서 일어난 그는 천천히 서재로 들어가서 잠바를 입었습니다. 그는 아주 천천히 걸어서 크리스마스 트리로 걸어 갔습니다.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 뒤에 와서 그는 소포를 하나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살짝이 집을 나갔습니다.

꽤 오랜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보도를 뛰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안심을 했습니다. 그는 한발자욱 경중 뛰어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꽃밭 노인은 훌륭한 분이예요.」 그는 서재로 들어가서 그의 잠바를 집어 던지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그의 눈에 빛을 띄면서, 그의 말소리에 어떤 확신을 가지고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만약 내가 첫번 크리스마스때 거기에 있었다면 나는 예수님께 내 새끼양을 드렸을 꺼예요.」

주일학교 페이지

행복한 모험

우리는 주일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행복을 맛보게 해 줄 수 있을까요?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주는 것은 주일학교를 맡은 교사의 책임입니다. 교사의 태도와 가르치는 방법이 교회에 내포하고 있는 모든것을 어린이들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일치 해야만 합니다. 교사가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은 생애중 어느때 보다 더 빨리 배우게 되는 시절인 어린이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사가 어린이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성은 무엇인가?

어린이들도 사람입니다. 그들 어린이들도 어른에게 처럼 사랑, 친절, 겸손, 우정이 필요합니다.

어린이들은 감수성이 예민합니다. 교사가 조용한 성격이 가졌다면 아이들도 그렇게 맑습니다. 교사가 어떤 경우에 잘 싸운다면 아이들도 역시 그렇게 합니다. 교사가 공과시간을 흥미진진하게 잘 이끌어 나간다면 아이들은 왜 그 이야기가 것처럼 중요한가를 알기 위하여 귀를 기울입니다.

교사는 좋은 영향력을 구사하는 무대에 있는 것입니다. 교사는 아이들에게 안전감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는 아이들을 좋아 해야지 아이들을 두렵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아이들이 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서 그것을 그

들에게 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말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교사를 당황하게 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못하게 해서 안 됩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교사에게 불친절한 말을 했다면 심중판구는 아이들이 교사의 불확실성과 불행, 걱정, 회의를 끄집어 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가 조용하고, 열성적이고, 진지하다면 즉 상냥한 말씨로써 알아들을 수 있게 개개의 어린이들에게 까지 설명을 한다면, 그 교사는 안전하고 좋은 환경을 창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과시간에 아이들은 얼마나 환영을 받습니까?

교사는 문에서 아이들을 반겨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의 정도까지 몸을 구부려야 합니다. 만약 그가 구부릴 수 없다면 의자에 앉아야 합니다. 이와같은 방법으로 교사는 아이들의 눈을 마주 보아야 합니다.

아이들의 관심이 그들의 양친보다 더 교사에게 끌려야만 됩니다. 교사가 아이를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로 생각하고 그를 친구처럼 대한다면 그 아이는 공과시간에 참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행복한 것 입니다.

교사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정 도로 그들을 대했습니까? 친절히 보이고 또 친절히 대해 주십시오.

어느 선생님은 항상 웃음을 띄고, 보다 잘 배워주며 「나는 박 영옥 자매야. 네 이름은 뭐지?」 이렇게 친절히 말하면 그 아이는 항상 말을 잘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순남아 나는 네 선생님이란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방이 하나있어. 자, 이리와. 우리 그 방을 좀 볼까?」 이런 경우에 교사가 자리에만 앉아 있다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그 아이와의 좋은 관계를 잃어 버리기 쉽습니다. 교사는 반드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방으로 함께 들어가야만 합니다. 어린 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으며 교사의 손을 잡기를 꺼려한다면 「엄마하고 함께 들어오는 것이 좋겠지?」 (항상 어린아이와 말하므로써 그 아이에게 자기의 부모보다 월등한 위치에 있게 해야만 됩니다.)

마음을 솔깃하게 끌게하는 이름표를 정열한 테이블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아이들에게 그것을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표가 어디에 꼽혀 있는가를 물어봅니다. (이러한 것은, 아이들에게 주의를 환기 시켜주며, 선생이 아이의 이름을 익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이와 익숙해지기전에 교사가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아이로 하여금 선생님이 자기를 진정한 사람으로 알아 준다고 느끼게 합니다. 아이들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어른보다 더 빨리 흉내 냅니다. 교사가 좀 서먹 서먹하게 잘모르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그들도 따라서 그렇게 대합니다.)

제일 좋아 하는 자리에 앉도록 하십시오. 이제 그 이름을 그로 하여금 어떤 것을 보게하며 다른 아이들과 이야기 하게 합니다. 아이들은 바닥에나 조그마한 의자에 등그렇게 앉게 하십시오.

아이들은 어떻게 배울까요

아이들은 감각을 통해서 꼭 어른들이 행동하는 것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헬렌 켈러가 물을 배울 때의 이야기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하여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다시 불러오게 합니다. 헬렌의 선생님인 셸리반양은 헬렌으로 하여금 물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 쓰게 해서 헬렌에게 물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게끔 노력했습니다. 헬렌은 그가 겪었던 경험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들장미의 향기에 끌려 우물로 통하는 길을 따라 내려가고 있었읍니다. 어떤 사람이 물을 쏟았읍니다. 나의 선생님은 내 손을 물이 나오는 구멍에 갖다 대었읍니다. 차거운 물 출기가 나의 한 손에 쏟아져 나올 때, 그는 나의 다른 한쪽 손에 「물」이 라는 글을 썼읍니다.....갑자기 나는 잊어버렸던 어떤 생각이 어렴풋이 떠올랐읍니다. 내 손에 흐르고 있는 이 놀랍도록 찬 어떤 것이 물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나는 그때야 알았읍니다.」

헬렌 켈러는 다섯개의 감각 중에서 두개를 상실 했읍니다. 하지만 그녀는 배워서 아는 기쁨을 터득 할 수 있었읍니다.

주일학교에서 첫번째 배우는 것은 알지 못했 던 것을 배우는 어린아이들에게 알도록 해 주어야만 합니다. 교사는 충분히 준비하여만 합니다. 즉 그 공과가 내포하고 있는 것을 훌륭히 설명할 수 있도록 잘 알아야 합니다. 교사는 공과에 있는 것을 잊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치 헬렌 켈러 여사가 「口—T—口」이라는 단어의 뜻을 잊어버리듯이 교사는 그들이 처음으로 체계적인 공부를 자기에게서 배우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기가 가르치는 것에 대한 모든 기본적인 지식을 알아야만 합니다. 아이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 그리고 어떤 새로운 것을 찾아냄으로써 기뻐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지난 여름에 세 살 먹은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책 「우리는 소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라는 책을 저술한 저자는 소가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많은 일을 어린이들에게 말했읍니다. 크게 관심을 가진 어린이들은 재빨리 흥미를 가지며 확실한 뜻을 알게 됩니다. 소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배우

는 것에 대한 기쁨은 그들이 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하는 계기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들은 재빠르게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대답은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답변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마지막까지 재미있는 순간을 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은 그들에게 그들 자신에 대한 좋은 신념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만큼 자기의 지식을 높이길 원합니다.

교사가 이야기 시간을 흥미있게 만드는 방법

교사가 이야기를 할 때 교사는 좋은 시청각 교육을 해야만 합니다. 즉 실제적이고, 색깔이 있고, 간단하고, 깨끗하고, 아이들이 쉽사리 볼 수 있게 커야 하며, 교사는 천천히 아이들에게 이야기 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자기에게 관심이 없다고 느껴질 때 교사는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천천히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관심을 다시 끌기 위하여 어떤 놀랄만한 일을 이야기 해야합니다. 예를 든다면, 교사는 아이들에게 손가락 놀이, 몸짓을 하면서 노래부르기, 감추어 놓았던 꼭두각시를 갑자기 내어놓기 등 몸을 움직여 아이들이 무엇인가 기대를 갖게 합니다. 교사는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생각을 알려 주기 전에는 말을 일단 중단합니다. 아이들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암시에 호응하게 됩니다.

어떤 아이는 선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아이를 때릴지도 모릅니다. 교사는 「순남아, 네 의자가 마루바닥에서 막 뛰고 있어. 네가 그 의자를 옮긴다면 복돌이의 의자 위에 마귀 할머니가 너 대신 살짝 들어올거야.」

아이들은 「네 자리에서 일어나」하는 일반적인 명령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적당하게 암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순남이는 팔을 펴고 있어요.」 「영철이는 다리를 쭉뻗고 있어요.」 「복길이는 아주 예쁘게 웃고 있어요.」 「수길이는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다른 아이들은 재빨리 그와같이 따라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다 끝날 때까지 질서가 유지 됩니다.

이야기가 끝난 후에는 무슨일이 생깁니까

이야기가 끝난 후 그날 배운 것과 관련이 있는 활동은 그 아이들 각자 각자에게 아주 뜻있는 경험을 하게 합니다. 아이들은 참여만 할 수 있으면 배울 수 있습니다. 진흙 만지기, 손가락 그림 그리기, 그림 맞추기, 아이들에게 공과 개념을 잊지 않게 해주는 놀이면 무엇이든지 유용합니다.

아이들은 감수성이 예민하다는 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그들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소한 것을 잘 꼬집어 냅니다. 교사가 적극적으로 생각 하고, 행동하며, 아주 적합한 예를 들어서 설명 한다면, 처음으로 주일학교에 찾아온 아이는 기쁨에 넘쳐 「다음에도 똑같은 즐거움」을 맛보려고 다시 오기를 희망하게 될 것입니다.

1968~1969 성찬식 성문봉독

장년 주일학교

12 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
심이니라. (요한복음 3 : 16)

1 월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일, 이것이 바
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 (모세서 1 : 39)

2 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 : 33)

3 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 : 3)

4 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잡 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 전서 15 : 20)

5 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 : 6)

6 월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 8 : 32)

7 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
임이요. (마태복음 5 : 8)

8 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
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 : 5)

유년 주일 학교

11 월~12 월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요한 1서 4 : 7)

1 월~2 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 : 39)

3 월~4 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 : 15)

5 월~6 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 :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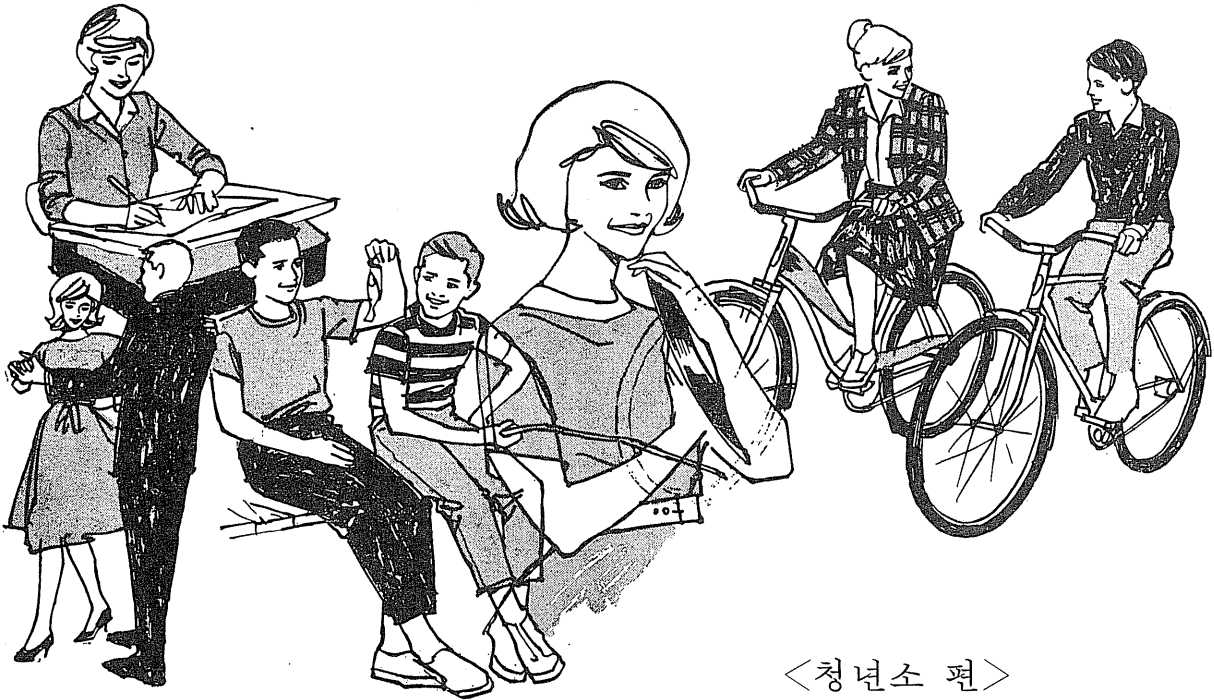
7 월~8 월

주께서 명하신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

(니파이 1서 3 : 7)

ADAGIO

GEORGE H. DURHAM



<청년소편>

우리는 예수의 가르침이 오늘날의 세상에도 적용된다고 젊은 성도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복음의 표준과 인기

폴 에이취. 던

얼마전, 그때 고등학교에 다니던 제 딸 아이 하나가 매우 난처한 문제를 가지고 와서 아버지로서의 커다란 책임감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일곱 명의 소녀로 구성된 사회 구름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네 명은 우리 교회 회원이었고 세 명은 비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원인 네 아이들은 처음부터 다른 세 아이를 우리 교회에 개종시키기로 암암리에 약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일로 어느 날 모두 함께 점심을 먹고 있을 때 교회 회원 중 한 아이가 상스러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다. 그 이야기는 저속했고 예의에 벗어나 듣기 거북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인기있게 만들어 주세요

그날 밤 우리집 아이가 집에와서 그 사실을 상세히 말하면서 「아빠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말씀하시지 말고 만약 아빠가 그런 경우에 처했다라면 어떻게 하셨겠나, 다시 말해서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셨나 하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빠 대답해 주시는



우리는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게 어울리면서 동시에 교회의 제반 규칙을 지킬 수 있습니까?

동시에 제가 친구들 사이에 따돌림을 받지 않게 해 주세요]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딸 아이와 좀 얘기하다가 성경을 펴서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케 하시던 일을 읽어준 다음 「이 이야기에서 무슨 암시같은 것을 얻을 수 없겠느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소신껏 행하고 헤아림을 받으라

「뭐 구세주께서 화가 나셨죠!」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생각해 본 것을 이야기해 주지.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는 헤아림을 받아야 할 때가 오게 마련이며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거나 비록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정당하기 때문에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 얼마 동안은 고립된 상태로 보내게 되겠지. 그러나 생각해 보고 그런 다음에 나와 함께 다시 얘기해 보자.」

「아빠, 아빠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저는 그 애들과 친하게 사귄 수가 없단 말예요.」

그 다음 날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신약 성경이 위력을 발휘하다

나는 나의 일을 하러 갔습니다. 하루가 지나 갔습니다. 다음날 내가 집에 돌아 왔을 때 내 아내가 부엌에서 감자를 벗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아내가 돌아서서 울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소?」

내 아내는 「다름이 아니라 당신의 딸 때문이에요. 저보다 그 애를 봐 주세요.」 나는 다른 위기가 생겼나 했습니다. 그래서 뒷침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가슴을 찢듯하게 하는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삶의 의의를 가지고 투쟁한 내 귀여운 딸이 혼자서 흐느끼며 울고 있었습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에게 말해 봐.」

「아버지 참 재미있는 일이에요. 나는 오늘 신전을 깨끗이 하는 일을 과제로 맡아서 해치웠어요.」

「오 그래 너는 학교의 부정한 일을 없었니?」

「아뇨. 나는 그 상스러운 얘기를 한 여학생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하고 우리집에 같이 갈 수 있니?’ ‘응.’ 그래서 우리는 집으로 걸어왔어요. 저는 그 아이를 침실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애를 앉혔어요. 그리고 저는 ‘예’ 나는 네가 우리들의 우정이 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것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해. 어저께 너는 정말로 우리들 모두에게 오점을 찍어 놓았어. 나는 수치스러웠어. 그리고 나는 네가 말썹을 일으키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알아. 하지만 네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들 모두에게는 그 이야기는 우리교회 회원이 아닌 학생들의 눈치를 보게했어. 네가 그런 이야기를 한 의도가 명예스럽고 그런 농담이 상당히 주의를 끌었다고 너는 생각하지만 다음에 네가 이러한 농담을 또 하고 싶을 때는, 미리 나에게 알려 주어서 자리를 피할 수 있도록 해줘.」

친구의 허리를 안으며 그 아이는 말했다. 「나를 용서해 주겠니?」

「아버지 저희들은 반 시간이나 울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후에 「아버지 아시겠어요?」라고 물었다.

「글쎄다. 모르겠는걸.」 나는 대답했다.

그때 그는 「신약 성경은 정말 사람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지요?」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보잘 것 없는 나의 방에서

계리 알. 헛치

나는 늙었습니다. 예, 대단히 늙었습니다. 집의 사방 벽은 옅디 옅습니다. 널판지 사이로 낮에는 햇빛이 들어오고 밤에는 차거운 밤바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굵직한 가죽 끈으로 묶어놓은 육중한 문으로도 햇빛이 들어 옵니다.

나는 근사하게 보이는 여인숙 뒤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은 나에게서는 즐거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천하게 태어 났나 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마굿간이기 때문입니다.

호적을 정리할 때가 닥아왔습니다. 그 근사한 여인숙은 사람들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내방에는 몇마리의 소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날 이른아침 나의 주인은 마루를 닦고 새로운 밀짚을 깔아 놓았습니다. 나는 가축에게 잘 해 주지를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가축들은 대단히 유순했었습니다. 가축은 한쪽 구석에 서서 짚을 조금씩 먹었습니다. 그날이 다 갈 무렵 나는 물끄러미 아름다운 마굿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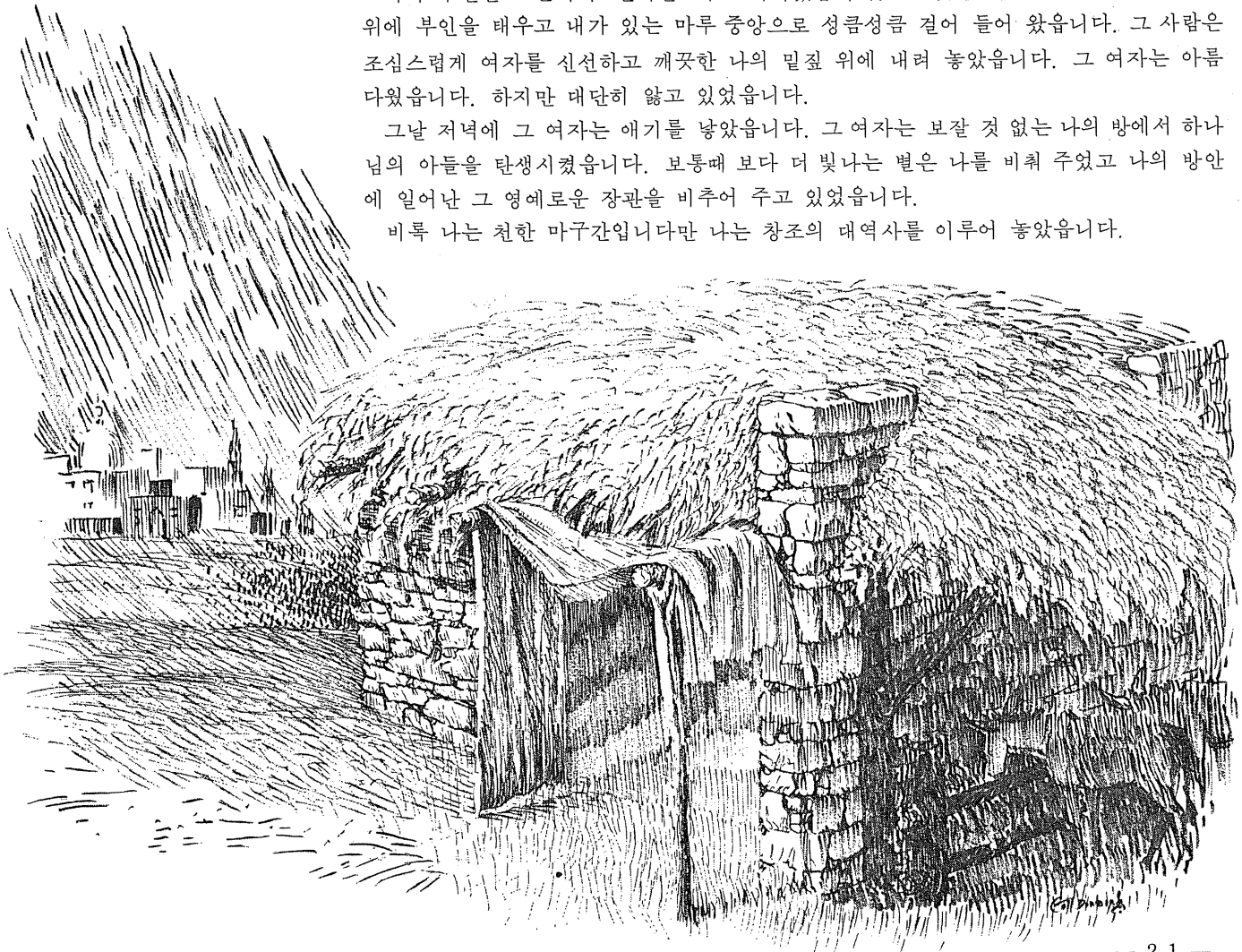
갑자기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내가 아주 싫어하는 차거운 바람이 들어 왔습니다. 그 때 친절해 보이는 나의 주인이 문 옆에 비스듬히 서있었습니다.

「선생님 참 훌륭한데요.」 웬 낯선 사람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빨리 서둘러야 되겠어요.」

나의 주인은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 낯선 사람은 조그마한 당나귀 위에 부인을 태우고 내가 있는 마루 중앙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 왔습니다. 그 사람은 조심스럽게 여자를 신선하고 깨끗한 나의 밀짚 위에 내려 놓았습니다. 그 여자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대단히 앓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 여자는 애기를 낳았습니다. 그 여자는 보잘 것 없는 나의 방에서 한나님의 아들을 탄생시켰습니다. 보통때 보다 더 빛나는 별은 나를 비취 주었고 나의 방안에 일어난 그 영예로운 장관을 비추어 주고 있었습니다.

비록 나는 천한 마구간입니다만 나는 창조의 대역사를 이루어 놓았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

트루디 리치



「그가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가 우리 마을로 오고 있습니다.」

「어디요.」 나는 물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내 말을 들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느 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해서 걸었습니다 「그가 언제 옵니까?」 나는 어머니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곧째, 지금쯤 오시겠지.」 어머니는 답변을 하시고 나가셨습니다. 음식 냄새를 따라가다가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느 길로 그가 오실까요?」 나는 물었습니다. 「틀림없이 도시로부터 오실거야.」 그들은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 아마 도시로부터 오실거야.」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큰길로 걸어간다면 나는 모든 마을 사람이 그분을 보러 뛰어오기 전에 만날 수 있을

꺼야. 나는 물결치듯 밀려드는 마을 사람들의 틈바구니를 싫어했으니까요. 어머니가 나를 놓지 않으리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팔기 위해서 한 세트의 주전자와 항아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주전자와 항아리를 예쁘게 장식하였습니다. 나는 어느 도자기도 장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곳에 함께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은 형님과 누님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길에서 우리들의 방문자를 만날거야. 집으로 오는 도중 내내 태연히 그와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 해야지. 나는 출발했습니다.

오래지 않아서 나는 내 뒤에서 많은 사람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친구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찾아서 집으로 메리고 가려고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누구를 따라 가든지 혹은 들보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데도 가지 못하나요? 왁자지껄하는 소리가 아주 가까이서 들려서야 비로소 나는 그들이 나를 전혀 찾고 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 앞에 있는 좁은 길에서 그들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음성은 점점 커지고 흥분해서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도착하신 것입니다.

부드러운 음성이 뜨거운 여름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사람들 곁으로 닦아갔습니다. 나는 그가 나를 볼 수 있겠지 하는 기대를 가져봤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가 가까이 있음에 틀림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겹겹히 그를 둘러싸고 그들이 이야기 하는 평화스러운 모습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굼직한 팔이 내 어깨를 감싸기 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말을 했습니다. 「주님 이 소녀는 이 마을에 사는 눈먼 소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왁자지껄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듣지 못했습니다. 태양은 사막의 꽃들을 시들게 하였고, 내 잔등의 옷을 사정없이 내려쬐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거운 손이 내 눈을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 생애에서 처음으로 어둠과 빛을, 수없이 많은 모양과 형상을 띄고 마치 계시처럼 내려오는 빛사이에 많은 그늘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랑과 온유와 동정이 넘친 눈 빛을 하신 분이 내앞에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발산하는 빛은 너무나 강렬하여 나는 겨우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나는 볼 수 있었습니다.



상호 향상회를 통한

개인의 완성

성경을 찾아보면 개인을 강조한 말씀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사도를 한분 한분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시면서도 나사로를 죽음으로부터 구해내셨고 마리아와 마르다와 대화를 나누셨고 뱀박을 받는 부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각 개인이 불사불멸과 영생을 상속받기 원한다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곧 나의 일이요 영광이니라」하셨습니다.

상호향상회 역원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나 자신이 보기에 중요한 형제 자매 개개인과 함께 일할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상호향상회 프로그램은 구룹 즉 다수인의 참여를 위해 마련된 것 처럼 보이나 사실은 개개인에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상호회 각반 교사는 개개인의 특성을 찾아내고 개인으로 하여금 각 구룹에 활동적인 참여를 하도록 지시를 받고 있고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로 필요로 할 때에 손에 손을 다정스럽게 잡아 주는 일은 일평생 잊혀지지 않는 인상을 준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

을 것입니다.

자기가 가르치는 형제 자매님의 이름을 기억해 둔다는 것은 교사의 첫째 책임입니다. 이것은 여러사람으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씩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첫째 단계입니다. 다음 단계는 교사가 각 회원들의 성격을 완전히 알게되어 그들의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졸업식에서나 혹은 교회집회에서 보는 각양각색의 얼굴 표정 만큼이나 느낌, 감정, 재능 등은 다양합니다. 일상 생활에서나 위험한 기간 동안 이겨나를 막론하고 개개인의 심금을 울려준다는 것은 상호회가 받아 들이고 성공으로 이끄는 과업입니다.

그리 예쁘지 않은 순진한 자매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재치도없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호회 활동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참여했습니다. 그 자매님의 반교사와 활동교사는 자매가 「행하는 사람」이 되 고져 애쓰는 성의에 깊은 감명을 받아서 될 수있는 대로 그 자매님에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자



상호 향사회 역원은 하나님 보시기에나 자신이 보기에
도 중요한 개개인 형제 자매와 함께 일할 책임을 맡고 있
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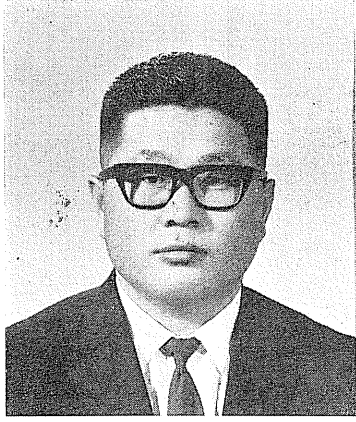
매는 로드 쇼에도 출연하고 중창대회에 나가며 이야기도 했
습니다. 그 자매는 수년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청녀 상호
향사회 장미반, 월계반, 이삭줍기반에 개근 했기 때문에
모범 자매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 자매는 무엇을 맡겨
도 해내리라는 신뢰를 받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님
의 간증은 놀라울 정도로 강하게 되었습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 자매의 성격이 외향적으로 될 수
없다고 여겨지던 것을 극복하고자 말았습니다. 모든 형제
자매는 그 자매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매가 이렇게
된 것은 일조일석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자매
를 이러한 경지에까지 오게한 것은 수년간 상향회 활동에
참여하므로써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발전해왔기 때문이
었습니다. 그 자매의 양친도 역시 상향회 프로그램에 참
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온 가족이 함께 휴가를 가는 동
안도 자기의 딸이 상향회에나 주일학교에 빠짐없이 참석
하는 자기 딸의 성의에 특별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모
든 가족은 그 자매님이 참석하는 집회에 꼭 참석했습니다.
그 자매님의 양친은 자기 가족 중의 한 사람이 상향회 푸
로그램을 통해서 개인의 완성을 가져왔다는 사실이 무엇
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매님이 20살이 된지 얼마 안됐을 때 선교사업을 끝
마치고 돌아온 멋진 형제님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 도시
를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몇 주일 전에 그 자매
님과 남편 그리고 4자녀들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
다. 그 자매님은 마치 여왕처럼 보이는 자비스러운 어머
니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은 사람들이 그 자매의 훌륭한 성공을 부러운 눈초리로 바
라보았습니다. 그들 부부가 거리를 걸을 때 지나는 사람마
다 이 훌륭한 두 부부와 자녀들을 보지 않는 사람은 없었
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상향회와 하나님의 축복
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 부부의 생활에 커다란 공헌을 한
교회의 생활에 대해서 저마다 한마디씩 말을 하고 지나갔
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상향회는 이러한 또 한분의
상향회 자매님을 발견한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성격, 교양, 능
력이 어떻든 간에 형제 자매 개개인에게 기회를 주고 사 람
을 찾게 하는 상향회의 책임은 앞으로 영원히 존재할 것이
며 또한 영원히 멈추어지지 않을 것 입니다.



정의로운 지도자가 되기까지

중앙지방부 제1보좌 박재암

동양의 성인 공자는 정의를 보고 주춤 거리는 것은 용기가 없는 탓 (見義不爲, 無勇也)이라고 했습니다. 인도의 성자 타골의 명언집에 이런 글도 있음을 알았습니다. 「정의는 실패를 승리로, 죽음을 영생으로 인도한다. 영원한 정의를 지켜라. 그러면 그 보수로써 끝내는 자기들의 모욕도 빛나는 승리가 될 것이다.」

진리의 진수 위에 있는 예수님은 설교를 통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했습니다. (마태복음 5:10~12) 정의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정의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고……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시고……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에베소서 6:10~21)

진실로 말세의 선지자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의 사도로부터 신권을 계승받았다는 사실을 철회했다면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순교자로서 말세의 회복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었을 것이요, 예수님이 바리새 교도나 사두개인들에게 자신이 구세주가 아니라고 현실적인 위협에 타협했다면 결코 오늘의 만인간을 구원할 능력은 상실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일성도요, 선택받은 주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이 구원, 이 영광을 담대히 전하는데 의의 방패를 들고 힘써 나아가는데 부끄러움과 낙약함과 좌절감과 세상적인 것만을 생각함은 참 지도자로서의 계획과 소망은 세상의 것이 되고, 이때까지의 공적이 허구를 그린 소설이 되고, 우선 하고저 한 마귀의 역할을 선의 빛으로 현상해낼 수 없는 무익한 종이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생활에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글을 쓰고저 하는 심경은 모든 성도들이 정의에 살고 진리를 탐구하며, 회복된 참 복음을 듣지 못한 문 심령들에게 영생의 영광을 깨닫게 하고 그 복음에 살도록 하는데 있어서의 지도자의 역할이란 필요한 것이며, 지도자의 생각과 몸가짐은 많은 영향을 미치며, 회복된 진리를 내세워 이곳에 구원이 있다는 정의를 주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다는데에 있습니다.

정의와 선은 어떠한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결국은 승리한다는 사실은 우리 지도자들이 바랄 수 있는 영광으로 여겨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으로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성공이 아니라 정의이어야 하겠고, 피해야 할 것은 실패가 아니라 최악의 상태이어야 하겠습니까. 진실로 올바르게 하는 자에게는 실패도 있고 적도 있는 법 일진대 功 자체만을 생각하고 功만을 이루고저 하는 사람은 자기만을 나타내려고 하여서 사랑이 부족하며 이기심만을 남에게 알리는 결과가 되는 것이니 자신의 인격과 신앙의 태도를 오욕의 심연에서 더럽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만일 제가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신앙을 바쳐야 할 일이 있다면 참 진리 위에 서서 우리의 위대한 회복된 복음을 주장할 수 있는 정의를 계획하도록하지 성공을 계획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교회의 여러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나이는 어리지만 주님의 신성한 사업을 의무화하고, 정당화하고, 체험화하여 나가는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어떤 위치가 아니라, 어떻게 섬기는가가 문제가 된다는 자기수양이 되어 있는 신앙인을 여러 사람 만나 보고 말일성도의 장래를 낙관시 합니다.

주전 5세기에 그리스의 아테네를 격파하여 패권을 장악했던 스파르타의 교육은 內的인 문제를 중요시하여 야비한 것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훌륭한 군인을 만들어 냈었던 그들이 가장 중요시했던 것은 정의를 내세우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정의는 강할 수 있고 언제나 이기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지도자 여러분! 진실로 믿는 사람이 승리하는 길은 권모술수나 수단, 잔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무기로 하는데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

리차드 엘 에반스

진리의 말씀

한 인간, 한 마음, 한 생애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시 8:4) 시편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심각한 연구를 불러 일으킵니다.

인간이 해 낼 수 있는 것—미술, 음악, 문학, 과학 등—은 너무 많아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볼 때 인간의 정신, 영혼, 예지란 것은 무한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인간은 지상에 있어서 육체, 정신, 영혼을 가진, 화학적 구성상으로는 모든 육체적, 정신적 기능으로 보아도 가장 훌륭한 기계 장치를 지닌, 성장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능력의 존재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 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욥 38:36)고 주께서 욥에게 물으셨습니다. 상처를 아물게 하는 지혜를 육체에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치를 따지고, 배우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능력에 대해 생각할 때 인간으로 인해 경외를 느끼지 않을 수 없고, 창조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인하여 더욱 경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육체, 이 정신은 우리가 현세에서만이 획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때 진지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일생 동안 지속됩니다. 이성을 가진 사람이 고의로 값진 기계를 남용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체를 못쓰게 만드는 일, 즉 육체의 기능을 감퇴시키는 어떤 것을 먹거나 해롭게 하는 것을 취하는 따위의 일은 얼마나 비합리적입니까. 무계획한 낭비는 얼마나 육체를 손상시키고, 정신에 흠이 가게 하며, 그것을 흐리게 하며, 대등관계 즉 양심을 무디게 하며, 우리를 해치는 행동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까. 각 사람은 적나라한 자기 자신이 전부인 것입니다. 한 인간, 한 마음, 한 생애뿐인 것입니다. 현세는 재빨리 지나가고 영원한 한 없이 긴 것이며, 생명, 정신, 기억, 재능, 목적, 무한한 가능성, 그리고 이 모든 놀라운 육체의 기능이 주어졌는데도 어찌하여 그다지도 근시안적이며 자신을 망치는 일을 하며, 자연과 하나님의 법—건강과 행복의 법—국법안에서 깨끗하고 분명한 사고방식, 순결한 양심, 건전한 평화, 건설적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일을 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율법이 없다면 생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5분부터 600키로 싸이클의 중앙 방송국 제 2 방송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AFKN(미군방송)에서도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5분부터 방송하고 있습니다.